



ESG 경영과 인재육성

이종재 공공가치연구원(PSR) 대표

I. 머리말

ESG가 경영현장의 대세다. ESG를 빼고는 경영을 얘기할 수 없는 정도다. ESG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이 속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경영현장에서 어떤 ESG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지, ESG 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은 무엇인지에 집중했다. ESG의 개념과 관련 용어를 살펴보고 ESG가 경영현장에서 왜 대세일 수 밖에 없는지를 탐색한 이유다. 경영현장의 대응이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은 필요한 ESG 인재를 가늠하기 위한 주요 테마다.

과정별, 산업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ESG 경영현장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업무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상당기간 교육현장의 주요 이슈로 자리할 전망이다. 대세 ESG 시대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인재육성 업무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양성 노력을 교육 주체들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ESG 전문가를 위한 주요 교육과정과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ESG에 대한 이해와 대응현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ESG의 의미와 세상의 변화

1. 의미와 변천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두 문자를 딴 용어다. 용어 자체는 아주 단순하지만 담고있는 뜻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복합적인 요소다.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등 환경부문과 고객만족, 인권보호, 다양성 존중, 지역기여 등 사회적 이슈, 그리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구조는 물론 기업윤리 등을 포괄하는 지배구조 문제가 좀 더 들여다 본 ESG의 개념이다.

ESG 경영은 ESG가 담고있는 과제 하나하나를 경영현장에서 실행에 옮기는 활동이다. ESG와 ESG 경영은 좀 더 디테일하고 다르게 해석돼야 하는 것이다. ESG의 개념에 대해 많은 전문기관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다소 혼란스런 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ESG를 ‘탈탄소 환경경영(E)과 포용사회(S), 공정경영(G)’으로 정리하고 ‘자본시장 투자자 관점에서 주요 의사결정 요인이자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로 부연한 당국의 정의¹⁾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당국의 발표자료는 ESG 경영에 대해서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 고려하고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명성과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풀이했다.

ESG의 개념과 ESG 경영활동을 구분해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어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관점’이란 말과 ‘사회적 가치’란 용어다.

우선 투자자 관점의 주요 의사결정요인이란 해석은 ESG란 개념이 빠른 속도로 전세계 경영현장에 자리잡게 된 배경과 연결된다. ESG 열풍의 발원지로 많은 전문가들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 래리핑크의 2020년 신년 서한²⁾을 꼽는다. 블랙록은 운용규모 10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래리핑크는 매년 초 신년 인사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의견을 밝혀왔는데 2020년 서한은 특별했다.

2020년 서한에서 그는 ‘기후위기가 투자위험 요인이다. 석탄 에너지원으로 매출 25% 이상을 거두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 장기적인 투자수익의 기본은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으며 ESG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임원진에

1) 기획재정부. 2021.8.26. 친환경 포용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방안.
<https://www.moef.go.kr/sch/schMain.do>

2) 블랙록 홈페이지.

<https://www.blackrock.com/corporate/investor-relations/blackrock-client-letter>

반대표를 행사하겠다.’ 고 밝혔다. 이후 전 세계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다. 2020년을 기점으로 ESG가 폭발력을 갖게 된 계기로 래리 핑크의 서한을 지목하는 배경이다.

사회적 가치는 ESG의 개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용어다. 재무적 요소를 반영해 손익계산서로 나타나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대비되는 사회적 가치는 돈보다는 사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심에 둔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이익을 내고 그 이윤으로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많이 내면 기업의 고유 목적은 달성된다. 기업이 이윤을 내기까지 기여하는 핵심 주체는 근로자와 소비자이고 투자자 역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원자재와 상품의 하청 납품관계에 있는 협력 거래선이나 정부,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의 영향력도 적지 않다.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Society) 파트너(Partner) 투자자(Investor) 소비자(Customer) 직원(Employee) 등을 SPICE, 이해관계자로 정의한다³⁾.

기업은 그동안 경제적 가치 일변도 경영활동으로 환경파괴와 양극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쏟아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해관계자에게 돌아왔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각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있는 활동이 필요하니 기업이 돈 버는데만 집중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도 나서달라는 이해관계자들의 주문이 사회적 가치다.

사회적 가치 실행항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관이 다각도로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의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다. UNSDGs는 빈곤퇴치와 기후변화 대응 등 17개 분야에서 169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을 꼽을 수 있다. 이 둘은 1990년대 이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용어들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활동이란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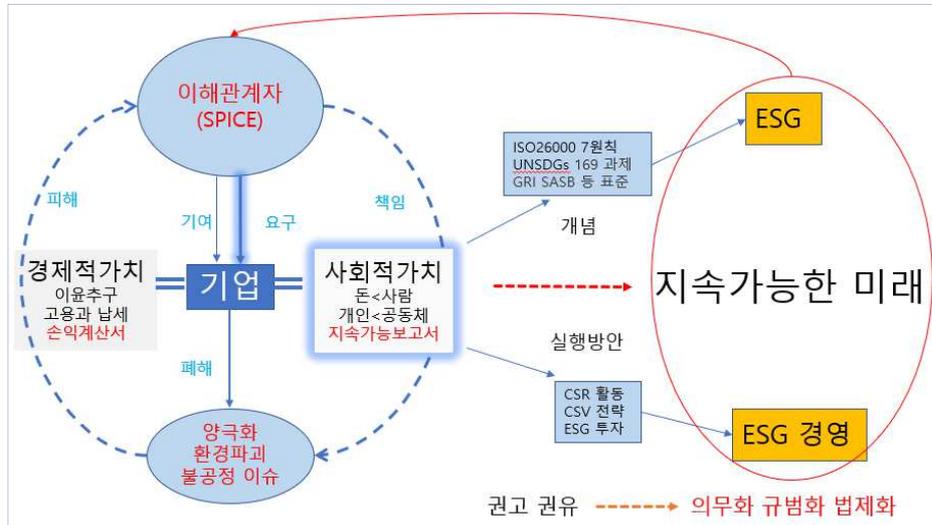
ESG란 용어 자체는 2006년 유엔책임투자원칙에서 제시됐었다⁵⁾. 202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는 사회적 가치 구현활동의 또 다른 표현이다. 즉 UNSDGs 등에서 밝히고 있는 지속가능사회 실현내용들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라는 ESG로 축약되고, CSR, CSV 등 사회적 가치 구현활동이 ESG 경영으로 구체화되고 있

3) Sisodia, R. S. (2011). Conscious capitalism: A better way to win: A response to James O'Toole and David Vogel's "Two and a half cheers for conscious capitalism".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3(3), 98-108.

4) <https://www.un.org/en/our-work/support-sustainable-development-and-climate-action>

5) <https://www.unpri.org/about-us/about-the-pri>

는 것이다(그림1).



[그림 1]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ESG 개념도

2. 이해관계자 경영

가. ESG 경영을 왜 해야 하는가

ESG 경영은 사회적 가치 구현방법 면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권고와 권유였던 CSR이나 CSV와 달리 ESG에는 당국의 법제화에도 돈의 힘과 각종 기준, 그리고 달라진 소비자들의 행동이 작용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 때문인데 ESG 경영은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규범화되고 강력해진 주문을 반영하는 이해관계자 경영이다.

기업에게 ESG 경영을 불가피하게 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당국과 금융기관, 표준제시 및 평가기관, 그리고 국내외 거래선과 소비자 등 5개 부문으로 정리된다. 우선 각국 정부 당국은 각종 ESG항목 실천의 법제화와 규범화를 진행 중이다. 가장 강력한 근거중 하나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2050년 넷제로(탄소배출량=감축량),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국가별 탄소배출량이 제한되고 2030년까지의 탄소감축 계획이 공개됐다⁶⁾.

이를 실행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6) 2021년11월 COP26 영국 글래스고 회의. <https://ukcop26.org/>

탄소중립·녹색성장법도 이같은 국제적인 규범화의 연장선상에 있고⁷⁾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주요 목표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다⁸⁾.

금융기관은 기업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해관계자다. ESG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투자기관은 자금을 빼고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높게 매긴다.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기관의 경우 주총에 참가해 경영진의 교체까지 요구한다. 반대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과 기업에는 경쟁적으로 투자자금이 몰리고 은행들은 금리를 낮춰준다. 선별투자, 임팩트 투자라는 ESG 관련 투자가 일반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연계대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국까지 기업에 대한 투융자 조건에 ESG 조항을 명확히 했는지를 공시토록 규범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이중, 3중의 ESG추진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유다(그림2 하이라이트 참조).

ISSB(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 ERSR(유럽지속가능보고기준)등 ESG 관련 국제표준이 2022년 공식화했고 기존 GRI(국제지속가능보고서기준)도 2023 보고서부터 새롭게 강화된 ESG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표1 참조). 재무적 지표에 집중했던 기업 평가에 비재무적 평가, ESG 등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SG 평가는 투·융자 기관은 물론 대외신뢰도와 기업평판의 기준이다.

국제 교역현장에서는 ESG 관련 각종 협약,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가입 여부가 거래의 필수조건이 되고있다. UNGC(유엔글로벌컴팩)나 TCFD(기후변화재무정보공개협의체), 재생에너지 사용 100%(RE100)등 환경 인권 사회적 책임 협약 등이 활동 중이다. 이들 협약은 비용을 수반하고 까다로운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구글, BMW 등 글로벌 대기업의 기본 요구다. 지난 2020년 12월4일 SK그룹 6개사가 동시에 RE100에 가입한 이후 현대차 LG 등 30개 가까운 기업들이 속속 RE100회원사로 이름을 올렸다. 2022년 9월 삼성전자의 가입과 함께 국내 기업에게는 RE100이 더욱 절박한 현안으로 자리하게 됐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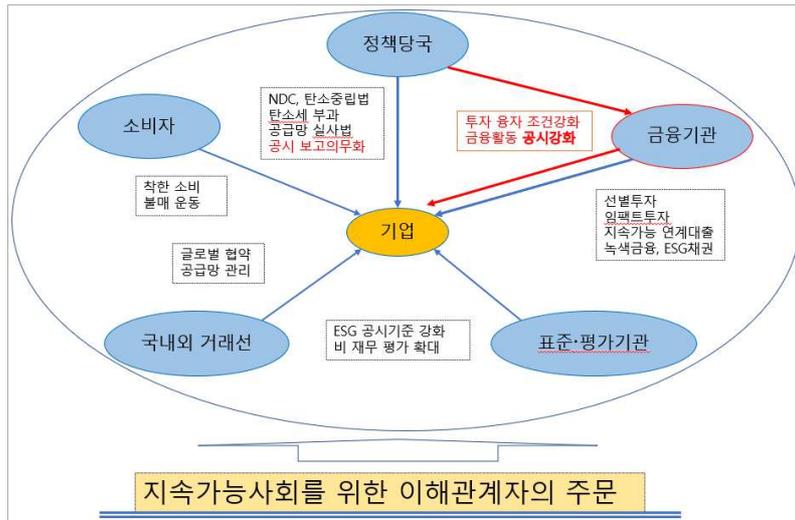
공급망 관리의 구체적인 법안은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다. EU차원에서 2024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EU의회의 결정은 가치사슬 내 기업의 ESG 규정 이행여부가 벌과금과 거래조건으로 연결된다.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을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미국 등 상당수 국가도 인권중심의 규정을 바탕으로 수입금지 등의 조치에 들어가 공급망관리는 ESG 경영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

7)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https://www.2050cnc.go.kr/base/main/view>

8) 환경 ESG리포트. <https://www.hankyung.com/esg/>

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5440>

ESG 경영을 잣대로 한 소비자들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조사기관들은 사회적 평판이 상품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1995년 전후 10년여를 출생연도로 하는 MZ세대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함께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ESG 경영을 불가피한 현실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ESG경영의 불가피성

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ESG 경영은 일반적으로 5단계로 진행된다. ESG 경영을 주도할 사내 시스템을 중심으로 과제를 도출해 이를 실행에 옮긴 뒤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널리 알리고, 평가를 받아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각 과정마다 이해관계자가 중심에 있다. 전담조직에는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실행과제 도출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이해관계자와 함께 할 때 과제의 실행력이 높아지며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는 작업이다. 평가기관의 기준은 1차적으로 보고서이지만 언론 등을 통해 나타난 각종 경영행태와 평판 등을 반영해 ESG 등급은 결국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매겨진다.

주요 기업의 ESG 경영위원회는 기업의 ESG 경영을 총괄하는 이사회 산하 기구다. 위원회에는 사내 이사진과 사외이사 등 이사회 멤버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10명 위원회의 경우 대개 3~4명이 이해관계자 그룹의 전문가이며 최고 경영자가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선임된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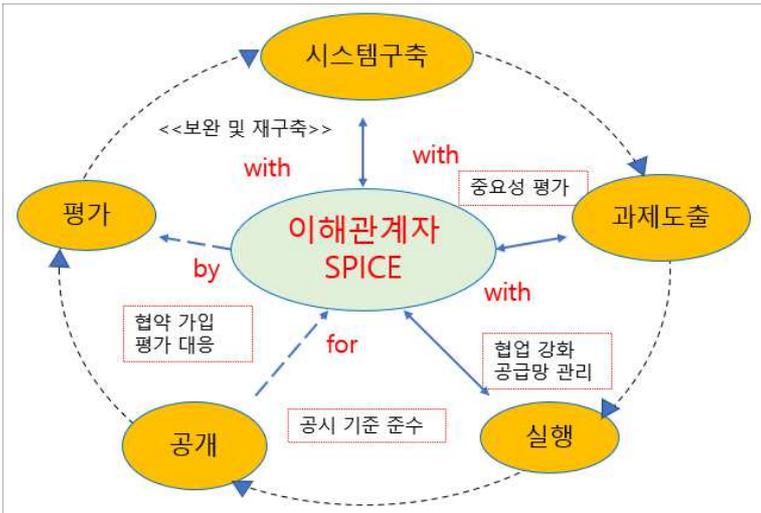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ESG 경영을 실천할 과제도출에는 중요성 평가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국제표준 기구들이 ESG 경영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는 중요성 평가는 실천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작업이다.

실행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반응과 영향력이 모니터링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이 요구된다. 특히 상품의 제조 판매 소비 전과정에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들과의 협업은 공급망 실사라는 이름으로 규범화되고 있다. ESG경영이 개별 기업을 넘어 납품 하청관계에 있는 거래기업 모두의 공통 이슈라는 말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ESG 실행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수단이다. 보고서 작성기준도 국제표준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정확하고 균형감있게 작성하는 등 내용의 명확성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담은 과제도출 과정과 소통, 이해관계자들에게 끼친 영향 등을 담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이 같은 원칙들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따지는 제3자 검증까지 거쳐야 최종 발행된다.

기업들의 ESG 경영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평가다. ESG 등급이 기업의 평판과 금융기관의 투·융자 판단기준으로 자리하면서 ESG 경영의 완결로 인식된다. 이해관계자중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있는 평가기관은 소비자 인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평판 등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해관계자를 중심에 둔 일련의 과정이 ESG 경영의 핵심이다(그림3).



[그림 3] ESG 경영 이행절차

III. ESG 경영 현장

1. 과제 도출과 중요성 평가

ESG 경영을 주도하는 사내 조직은 ESG위원회 산하 사무국이다. 대개 기획실이 주축이 돼서 주요 부서별로 한 두 명씩 TF 형식으로 구성된다. 차출 구성원은 담당 부서에서 실행할 과제를 제시하고 ESG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부서원들과 공유 및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ESG 이행과제는 기업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ESG 표준 중에서 기업의 상황에 맞게 도출된다. ESG 국제 표준은 2000년부터 대표 기준으로 자리해 온 GRI(국제보고기준)와 UNSDGs(UN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축으로 ISSB(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등이 중심이다. 이 중, 2020년 이후 주요 기준으로 급부상한 ISSB가 주목된다. 다양한 기준들이 통합돼 대표성을 갖는데다 IFRS(국제회계기준위원회)산하로 기존 재무보고와의 통합보고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미국차원의 별도 공시규정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일찍이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 표준을 제시해온 EU는 2021년 ERS(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로 발전시켰고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차원의 기준을 2022년3월 확정했다(표1).

<표 1> 지속가능 경영 주요 표준

기준	출범	적용대상	특징	적용	검증 요구사항	대체공시 수 용
ISSB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IFRS 2021. 국제 회계기준위원회 산하	전세계 기업 기관	Scope3 적용 환경기준 우선적용 재무 중요성	2024년	정보공시 전반에 대한 외부감사 요구	SAS지표와 TCFD기준 포괄 원칙, GRI와 협력
ESRS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EFRAG 2021.재무 보고자문그룹.	상장사 및 매출, 자산, 종업원 기준 중 2항 이상 충족 비상장사	Scope3 적용 이중 중요성	2024년	적용 3년차 제한적 검증, 6년 이후 합리적 검증 요구	다른 기준의 공시표준 사용도 허용
SEC규칙 미국 기후공시표준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비상장포함 모든 정보공개 대상 기업	기후관련 공기 의무화 재무 중요성	2024년	Scope 1,2 제한적 검증이후 4년차에 검증입증 의무화	환경보호청 등 데이터 공유
GRI 글로벌 지속가능 보고기준	1997 출범. 2000년 기준제시.	지속가능보고서 작성대상 전 기업	전세계 최대기업 활용 이중 중요성	2023년	40개업종 분류 인권규정 강화	디테일 공시규정으로 ISSB등과 호응

기업은 표준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 중 자신의 업종에 맞는 중요도를 감안해 실행 과제를 정리한다. 모든 기업이 E와 S, G 각 분야별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

다. 국민은행과 포스코 간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각 부문의 실천과제의 숫자나 비중이 같을 수 없다는 얘기다. ISSB는 11개 분야 77개 산업별로 구분해 산업별 중요성 지도(Material Map)를 제시한 SASB를 원용하고 GRI는 업종을 40개로 나누어 실행과제를 구분 제시하고 있다.

과제도출과정은 보고서 작성내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과 실행결과 등을 보고서에 하나하나 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장사의 경우 ISSB와 GRI로 대별되는 표준을 바탕으로 과제를 도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은 과제도출 과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중소기업에게는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정리된 K-ESG 가이드라인¹⁰⁾이 유용한 지침으로 추천된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기업의 실행과제 선정에 적극 반영되는 과정은 1차 사내 도출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다. 이해관계자가 판단하는 중요도와 기업의 사업적 관점에서의 중요도를 감안해 2차 과제가 정리된다. 이 과정 역시 국제 표준 기구는 중요성 평가(Material Matrix)로 도출방법을 제시한다. 예컨대 1차 과제 50개 중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중요도를 반영해 30개 안팎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다. 최종과제는 사업과의 연계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한 최고 경영진에 의해 대개 20개 이내에서 결정된다.

2. 공급망 관리

ESG 경영과 함께 크게 부상하고 있는 이슈는 공급망 관리다. 공급망 관리는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기업에서 ESG 핵심지표 중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기업과 협력기업 모두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연결된다. 거래관계의 지속여부도 공급망 관리의 제대로 된 실행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ESG 경영에서 공급망 관리는 ‘납품 하청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 간 공동운명체’로서의 대응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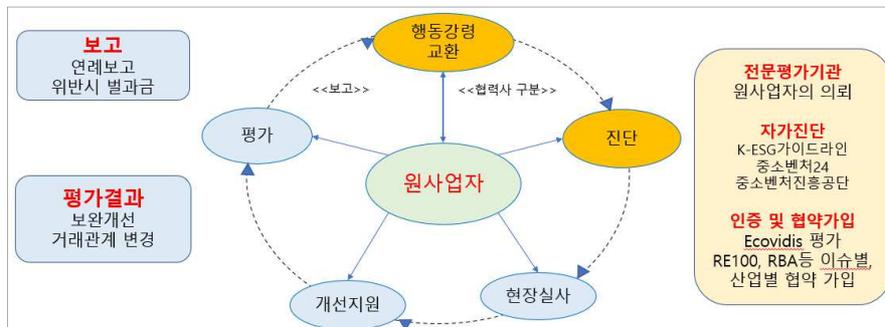
공급망 관리는 국제거래관계에서 업종별 협약 등의 형식으로 이미 글로벌 기업간 적용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한 RE100이 대표적이며 전기 전자업종의 주요 협약인 RBA, 자동차업종의 Drive Sustainability 등이 활동 중이다. 공급망 관리의 1차적인 대응은 이들 협약을 통한 협약사로의 의무 준수로 가능하다.

협력기업간 진단과 실사, 지원 및 평가는 공급망 관리 대응의 기본이다. 원사업자

10)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는 협력관계에 있는 거래기업들과 ESG 경영 이행 협약을 맺고 대응 방안을 교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치사슬의 전공정 후공정을 감안한 공급망 관리 적용대상 기업의 정확한 확정이 우선이다.

공급망 관리에는 현장 실사가 수반된다. 협약과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직접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컨설팅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코바디스¹¹⁾ 등 국제적인 공급망 관리 평가기관의 규정을 챙겨 평가에 대비하는 작업도 공급망 관리의 주요 대응 중 하나다. K-ESG 가이드라인이나 중소기업 24¹²⁾ 등 정부지원 자가진단은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대응방안이다(그림4).



[그림 4] 공급망관리 대응절차

공급망 관리는 특히 새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표준중 협력기업의 탄소배출량까지 관리 보고해야 하는 Scope3¹³⁾의 확대 적용으로 더욱 큰 관심 대상이다(표1 참조). 중소기업들까지 ESG 경영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이유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공급망 관리에 대응 가능한 전략적 구매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배경이다.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 등 금융기관의 용자나 보증 신청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연계대출과 보증에도 현장실사를 필요로 한다. 금융기관 역시 거래 기업과의 ESG 실행을 위해 사실상 공급망관리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들 금융기관의 공급망 관리차원의 실사에는 관련 교육과 자격증을 소지한 전직 종사자의 활동이 유용하게 거론된다.

11) <https://ecovadis.com/>

12) 중소기업기업부. smes.go.kr

13) Scope는 온실가스배출 공시기준. 스코프1은 기업단위 직접배출, 2는 에너지원 구매를 통한 간접배출, 3은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모든 간접 배출을 말한다.

3. 보고서 작성

기업 입장에서 ESG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표적 이유 중 하나는 공시의 의무화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5년부터, 2030년부터는 전 상장사가 ESG 실행 내역을 사안에 따라 수시, 혹은 연례 보고해야 한다.

연단위 지속가능보고서, ESG 경영보고서가 공시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2022년 연례보고서를 공개한 국내 기업은 130개(KRX 공개기준)¹⁴⁾.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기업은 5년 내외에 최소 연 1천 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 상장사의 의무공시 개시연도가 2030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3~5년의 추세치를 담아야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제적인 작성 기준을 따라야 한다. ESG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자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도록 정해진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를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공시’가 지속가능보고서다. 보고서 기준 제시기관은 GRI나 ISSB, UNSDGs 등 과제도출 표준기관의 연장선상에 있다. 표준기관마다 출발배경이나 강조하는 내용 및 추구하는 가치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표1 참조).

대표적인 표준 제시기관인 GRI는 1989년 민간차원의 환경연맹 Ceres를 모태로 1997년 보고서 제작 기준기관으로 설립됐다. 이후 G1, G2, G3, G4 등으로 내용이 계속 보완됐는데 2023년 1월 이후 작성 보고서부터는 GRI 2021년 버전에 업종별 내용이 보장되는 2022년판 기준이 적용된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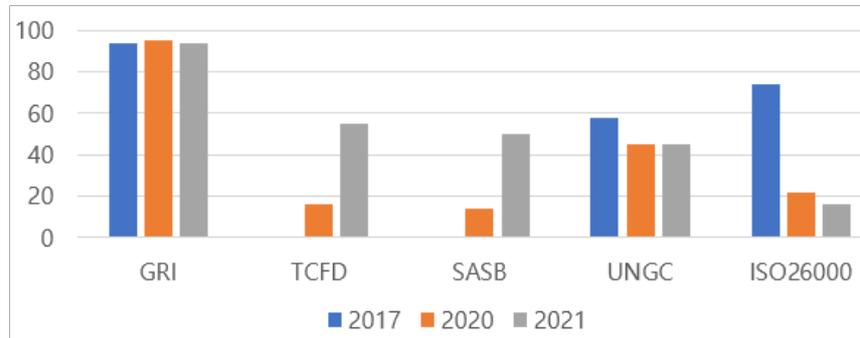
TCFD와 SASB를 포함하는 상당수 표준의 통합버전인 ISSB는 2021년 11월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창립을 선언했다. 2022년 3월 초안¹⁶⁾이 발표됐고 2023년 상반기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된다.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기준이 2022년을 기점으로 강화 및 보장되면서 올부터 전세계 지속가능보고서 시장에는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보고서 발행 기업들은 현재 표준 제시기관의 기준들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전세계 보고서 발행기업의 70% 이상이 GRI 표준을 대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보고서 발행기준 국내 기업들의 90% 이상이 GRI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5).

14) 한국거래소. <http://esg.krx.co.kr/>

15) GRI 홈페이지. <https://www.globalreporting.org>

16)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http://www.kasb.or.kr>



[그림 5] 지속가능보고서 활용 표준

*KRX 등 인용 재구성

표준기관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제3자의 검증으로 신뢰도를 높인다. 검증기관의 검증표준 AA1000AP(2018)는 보고서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¹⁷⁾. 포괄성(Inclusivity)과 중요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영향(Impact) 등인데 하나 같이 이해관계자가 중심이다.

포괄성은 과제도출과 실행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포함시켰는지를 따진다. 임직원 (노조 포함), 고객, 주주 및 투자자, 협력업체, 지역사회·NGO,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 이해관계자를 분류하고, 이해관계자 그룹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지 등이 검증대상이다.

중요성은 과제도출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판단을 충분히 포함시켰는지 여부다.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내·외부 환경분석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슈를 파악했는지, 관련성이나 중대성 평가를 통해 중대 이슈 우선순위를 결정했는지 등이 고려대상이다.

대응성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검증한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들로부터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수렴된 의견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한 대응활동이 적절히 보고됐는지 등이다.

임팩트는 조직의 활동 결과가 다른 집단이나 조직,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담았는지를 본다. 조직 전체에 적용되는 프로세스 구축, 긍정 부정 잠재적 영향을 포착하고 측정할 수단, 정성 정량적 평가 및 계량화 등이 요구된다. 검증전문가의 필요성은 보고서 시장의 확대와 함께 크게 높아갈 것으로 보인다.

17) <https://www.accountability.org/standards/>

4. ESG 평가

기업의 ESG 등급은 실행한 활동을 바탕으로 전문 평가기관들에 의해 매겨진다.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력 평가기관으로는 모건스탠리 계열의 MSCI와 다우존스의 DJSI를 필두로 10여 개 남짓이다. MSCI는 전세계 8천여 기업을 대상으로 ESG 관련 35개 이슈를 반영, AAA~CCC 등 9단계로 구분하고 전세계 7천여 기업(국내기업 200여사)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DJSI는 공통항목과 산업별 항목으로 나누어 0~100점으로 점수화한다.

국내 평가기관으로는 한국ESG경영원(KCGS)과 ESG경영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KCGS의 경우 평가문항을 18개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265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7등급으로 분류한다. 평가는 지속가능보고서 등 공개자료와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ESG경영연구소는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연 2회 7등급으로 평가하며 국민연금과 업무협력을 맺어 국민연금 출자사들의 높은 관심대상이다.

평가기관 역시 전세계적으로 지나치게 많고 기관마다 평가 등급이 다른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MSCI와 DJSI간 등급격차도 분명하며 국내 평가기관의 경우 55개기업의 평균 ESG등급 경차가 1.4단계이며 3단계 이상 차이나는 기업도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¹⁸⁾. ESG 평가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전문 인력의 수요도 늘고 있지만 난립과 등급격차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아 평가기관의 재편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V. ESG와 HRD

1. 부각되는 전문성

ESG 경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영현장의 뉴 패러다임인 만큼 기업들의 전문 인력 수요는 필연적이다.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ESG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과정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본격적인 ESG 경영과 함께 부각되는 ESG 전문인력에게는 이해관계자 대응 등

18) 전경련, 2021.4.26. 국내외 ESG평가 동향과 시사점

ESG 경영 전반에 대한 파악은 물론 분야별 전문성이 필수조건이다. 대응단계별로 중요성 평가와 공급망 관리, 보고서 작성과 검증, 평가분야 등의 전문성이 우선 고려된다. 특히 공급망 관리의 경우 날이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현장 실사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그 어느 분야보다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시장도 급격히 커질 것이 분명하다. 2030년부터 전 상장사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공공기관 역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보고서는 보고 항목에 따라 추세치를 담기 때문에 보고서 시장의 확장세는 이미 뚜렷하다.

지속가능보고서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수반되는 제3자 검증인력의 수요도 불가피하다. 제3자 검증은 국제적으로 인증된 AA(AccountAbility)와 ISAE(국제감사인증위원회), 두 검증표준이 세계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 보고서의 검증을 맡고 있는 AA의 경우 검증된 기업에 자격증을 부여하고, ISAE 검증은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인력은 공급망 실사에 따른 점검인력은 물론 투자와 용자결정을 차등하는 금융기관의 수요도 예상된다. 이는 퇴직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다양한 정부 정책의 변화도 ESG 전문가 양성의 분명한 이유다.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 ESG 경영 역량평가 보증제도의 시행, ESG 경영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신용보증 지원 및 용자확대 등 정책에 대응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다양한 환경산업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신기술분야는 ESG 시대와 함께 부각되는 유망산업이다. 탄소배출이나 폐기물관리 등 관련 기관에 종사했거나 업무를 맡고 있던 전문가들의 몸값은 이미 높아가고 있다.

2. 다각적인 전문 인력 양성과정

경영현장에서 ESG 전문 인력을 찾는 만큼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상당수 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ESG 전공학과가 개설되고, 전문교육과정으로 5개월 전후의 연수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 진행되는 ESG 연수프로그램 모집 광고는 늘 7~8개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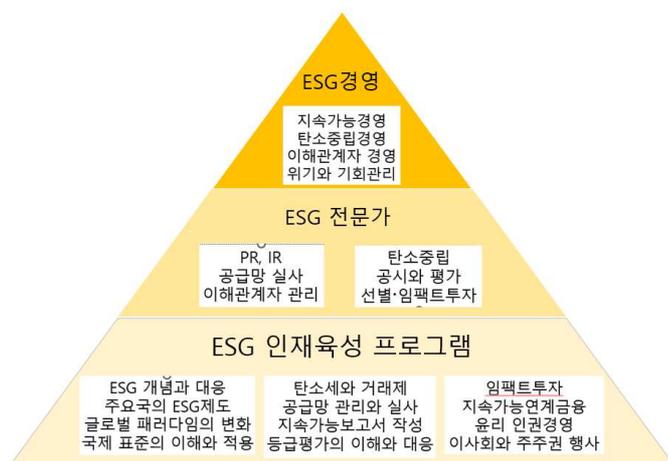
ESG 교육 방향은 기업의 기획 및 IR·PR담당부서를 목표로 한다. 정부의 정책과

공시기준에 맞게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임직원 역시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ESG 경영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진과 임팩트투자자로 신규 유망사업가를 찾는 금융권 관계자들도 교육 마케팅의 주요 타겟이다. ESG는 면접현장의 단골 질문이어서 취업준비생의 필수 과정이다.

ESG 교육 및 연수과정을 운용 중인 생산성본부(KPC)와 능률협회(KMA) 표준협회(KSA)등 교육 컨설팅 기관은 물론 전문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은 ESG 경영시대 HRD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기관마다 우선 ESG 개념과 글로벌 패러다임 관련 용어의 변천과 파리기후변화 협약, 주요국의 ESG 제도를 설명한다. 탄소중립의 주요 동향과 법률분석, 넷제로를 위한 경영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주축으로 산업별 넷제로 전략 및 위험과 기회요소 등을 교육한다¹⁹⁾.

ESG 실무진을 위해서는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이해와 활용, ESG 공시제도의 동향 및 공시항목 분석, 그린워싱의 위험성과 방지요령 등이 주요 커리큘럼이다. 자본시장의 변화를 몰고 온 지속가능금융과 기후금융, 자산운용사의 ESG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도 금융 ESG 부문 교육의 핵심이다.

ESG 경영 현장 진단이나 제3자 검증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 교육도 시작됐다. 이들 교육의 커리큘럼은 ESG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교육한 뒤 공급망 관리의 주요 내용과 현장 사례 및 평가동향, 국제 표준기구의 제시기준과 검증 원칙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이론과 함께 우수사례 공유와 실전연습까지 진행한다.



[그림 6] ESG 인재육성을 통한 ESG경영

19) 한국생산성본부 ESG교육 프로그램.

https://www.kpc.or.kr/PTWED002_index.do?cclno=49049055

V. 맺음말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시시각각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경영현장의 변화는 더욱 심하다. 대세를 이뤄 영원할 것 같던 경영전략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다.

이는 ESG란 용어의 탄생과정이 잘 말해주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해야 한다는 CSR이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활동으로 2000년을 전후해 주류 이론으로 자리했다. 기업의 책임이라는 용어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기업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공유할 수 있다는 CSV 개념이 한동안 대세였다. 하지만 이제 ESG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상징하는 핵심용어로 전세계 경영현장을 압도하고 있다.

ESG 역시 용어 자체의 생명력은 무한할 수 없다. 언제 어떤 용어와 이론으로 대체 될지 모른다. ‘ESG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궁금증과 음모론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현장의 속 깊은 현실이다. 하지만 전 세계 200개 가까운 국가가 모여 인류 공동의 번영과 지구의 위기에 공감하고 2050년까지라는 시한까지 정해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기로 한 목표도 엄연한 현실이다. 주요국들은 공동의 목표를 다양한 각도로 법에 담아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ESG란 용어 자체는 시한부일지 몰라도 담고있는 뜻만큼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예측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 최소 2050년까지는 돈보다는 사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자는 경제 환경 사람의 조화가 경영현장의 큰 흐름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본 연구가 적절한 인재를 육성해 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현장을 목표로 한 배경이다. 다만 폭과 깊이를 더하지 못한 탐색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밝힐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이종재(2016). *건강한 기업의 장수 이야기*. 서울: 코스리.
- 이종재(2022). 2022년 ESG경영은 국제 표준의 구체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제3자 검증, *융합경영리뷰*, 42, 11-16.
- 이종재(2022). 가치사슬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과 ESG 경영, *융합경영리뷰*, 35, 2-8.
- 탁진규(2022). SDGs-ESG의 이해, *융합경영리뷰*, 39, 24-26.
- Sisodia, R. S. (2011). Conscious capitalism: A better way to win: A response to James O’Toole and David Vogel’s “Two and a half cheers for conscious capitalism” .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3(3), 98-108.
- AccountAbility. (2018). AA1000AP accountability principles 2018.

이 종 재



前 한국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
現 한국생산성본부 ESG위원장.
現 PSR(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대표.
관심사: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건강성, ESG 국제 표준 및 제3자 검증.



발행인 편집인 : 조대연
인쇄 : 고려대학교 HRD 정책연구소
이메일 : Kuhrd@korea.ac.kr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길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8호 | 02-3290-5213